

내가 너를 잊지 않길

영상을 보고, 핵심 내용을 떠올리며 풀어 보세요.

학년 / 반

이름

날짜

영상 미리보기

소설의 엔딩이 다가오며 작가의 설정이 무너지고 인물들의 기억이 뒤섞인다. 사람들이 하나둘 '유제비'를 잊어 가는 가운데, 인물들은 기억의 조각을 맞추며 이곳이 소설 속 세계이고 제비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는다. 제비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면서도 '미련 없이 보내 주겠다'는 수오, 사진 대신 제비의 그림을 남기는 그의 마음을 통해, 피할 수 없는 이별 앞에서도 소중한 추억과 진심을 잊지 않으려는 이야기를 그린다.

1

내용 이해 · 객관식

소설 속 세계에 생긴 변화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작가의 설정이 무너지고 기억이 뒤섞인다
- ②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완전히 멈춰 버린다
- ③ 모든 사람이 사라진다
- ④ 학교 건물이 바뀐다

2

사실 구별 · 객관식

이 변화 속에서 특히 반복되는 일은 무엇인가요?

- ① 수오가 전학을 간다
- ② 사람들이 유제비의 기억을 잊어버린다
- ③ 다미가 다시 아프다
- ④ 진우가 그토록 좋아하던 사진을 아예 그만둔다

3

내용 이해 · 객관식

인물들이 기억의 조각을 맞추며 깨달은 사실은?

- ① 모두 꿈이었다는 것
- ② 소설을 쓴 작가가 사실은 어린 중학생이라는 것
- ③ 이곳이 소설 속이고 제비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
- ④ 시험이 끝났다는 것

4

추론 · 마음 읽기

수오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가요?

- ① 다가오는 중요한 시험을 또 못 보는 것
- ② 친구와 싸우는 것
- ③ 부모님께 혼나는 것
- ④ 유제비가 자기 곁에서 사라질까 봐

5

순서 맞추기

이야기가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써 보세요.

- ㄱ 이곳이 소설 속이며 제비가 돌아가야 함을 깨닫는다.
- ㄴ 소설 속 세계의 설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.
- ㄷ 제비를 미련 없이 보내 줄지 고민한다.
- ㄹ 사람들이 유제비의 기억을 잊기 시작한다.

□ → □ → □ → □

6

해석 · 마음 읽기

수오가 '유비가 돌아가게 되면 미련 없이 보내 주겠다'고 한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제비가 미워서
- ② 사랑하기에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마음
- ③ 귀찮아서
- ④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곧 다 잊어버릴 거라서

7

해석 · 의미 파악

수오가 사진 대신 제비의 '그림'을 그린 까닭은?

- ① 그림은 남을 것 같아서(잊지 않으려고)
- ② 사진기가 없어서
- ③ 제비가 자기 모습을 그려 달라고 직접 부탁해서
- ④ 그림 속제가 있어서

8

종합 · 주제 파악

부제 '내가 너를 잊지 않길'이 담은 핵심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한번 헤어지면 무조건 다 잊어야 한다
- ② 추억은 소용없다
- ③ 추억과 진심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
- ④ 기억은 저절로 사라진다

9

공감 · 서술형

피할 수 없는 이별 앞에 선 제비와 수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.

10

가치 판단 · 서술형

소중한 사람이나 추억을 '잊지 않으려는' 노력이 왜 의미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.

정답지

서술형·열린 문항은 예시 답안이며 학생의 생각을 폭넓게 인정해 주세요.

고학년

내가 너를 잊지 않길

- 1 **정답** ㉠ 작가의 설정이 무너지고 기억이 뒤섞인다
- 2 **정답** ㉡ 사람들이 유제비의 기억을 잊어버린다
- 3 **정답** ㉢ 이곳이 소설 속이고 제비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
- 4 **정답** ㉣ 유제비가 자기 곁에서 사라질까 봐
- 5 **정답** ㄴ → ㄹ → ㄱ → ㄷ
- 6 **정답** ㉡ 사랑하기에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마음
- 7 **정답** ㉠ 그림은 남을 것 같아서(잊지 않으려고)
- 8 **정답** ㉢ 추억과 진심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
- 9 **정답** [예시] 함께한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거야. 헤어져도 그 추억이 서로를 지켜 줄 거야. · (평가) 이별을 위로하고 추억의 가치를 담아 표현했는지 봐 주세요.
- 10 **정답** [예시] 기억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음을 증명하고, 힘들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 때문이다. · (평가) 기억·추억의 의미를 까닭과 함께 적었는지 봐 주세요.